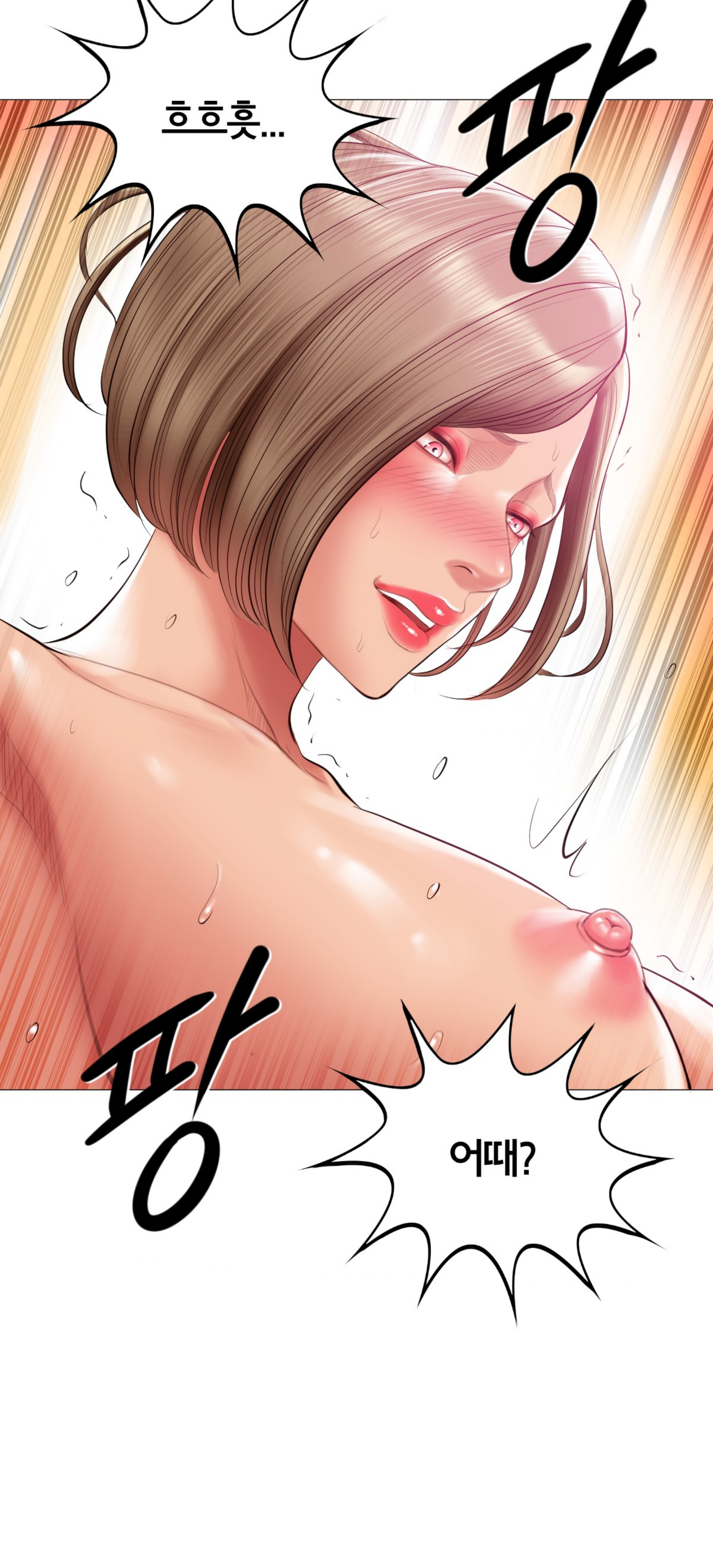




AI Generated







이, 이래도...
하웃...♡

내가
저 애송이년보다...
별로야?

....푼!
아니.

그냥 한번
놀려본거야.

넌 저런 하찮은
여경 따위와 비교할 수 없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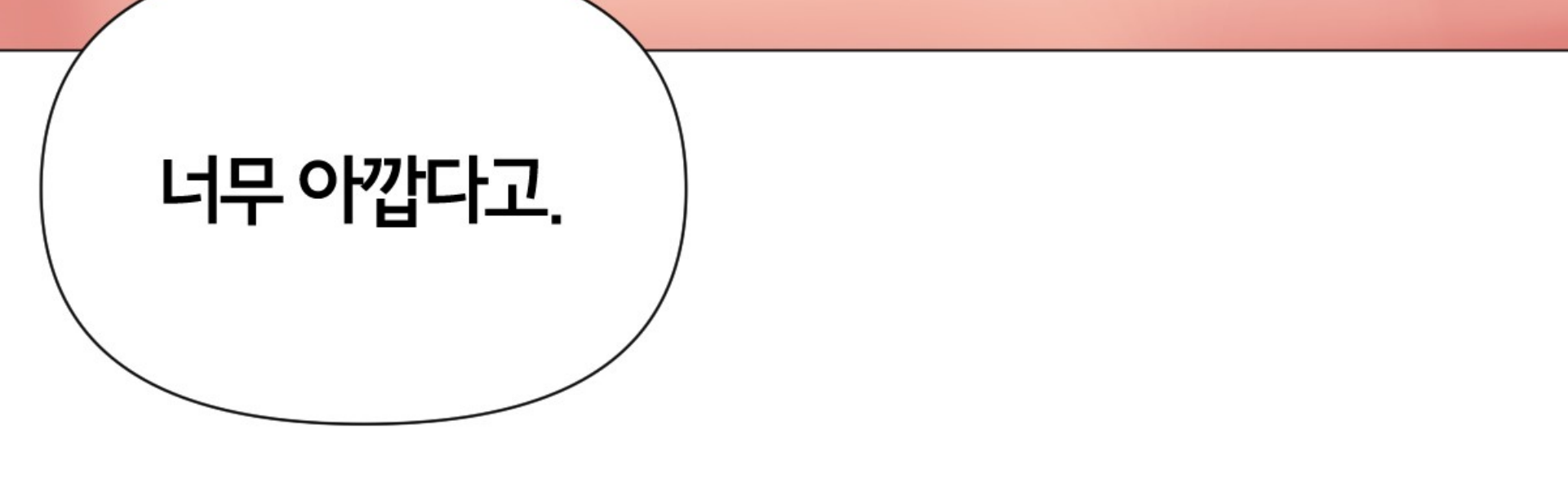
어...?

네가 억누르고 있는
욕망을 끌어내려고
일부러 자극한거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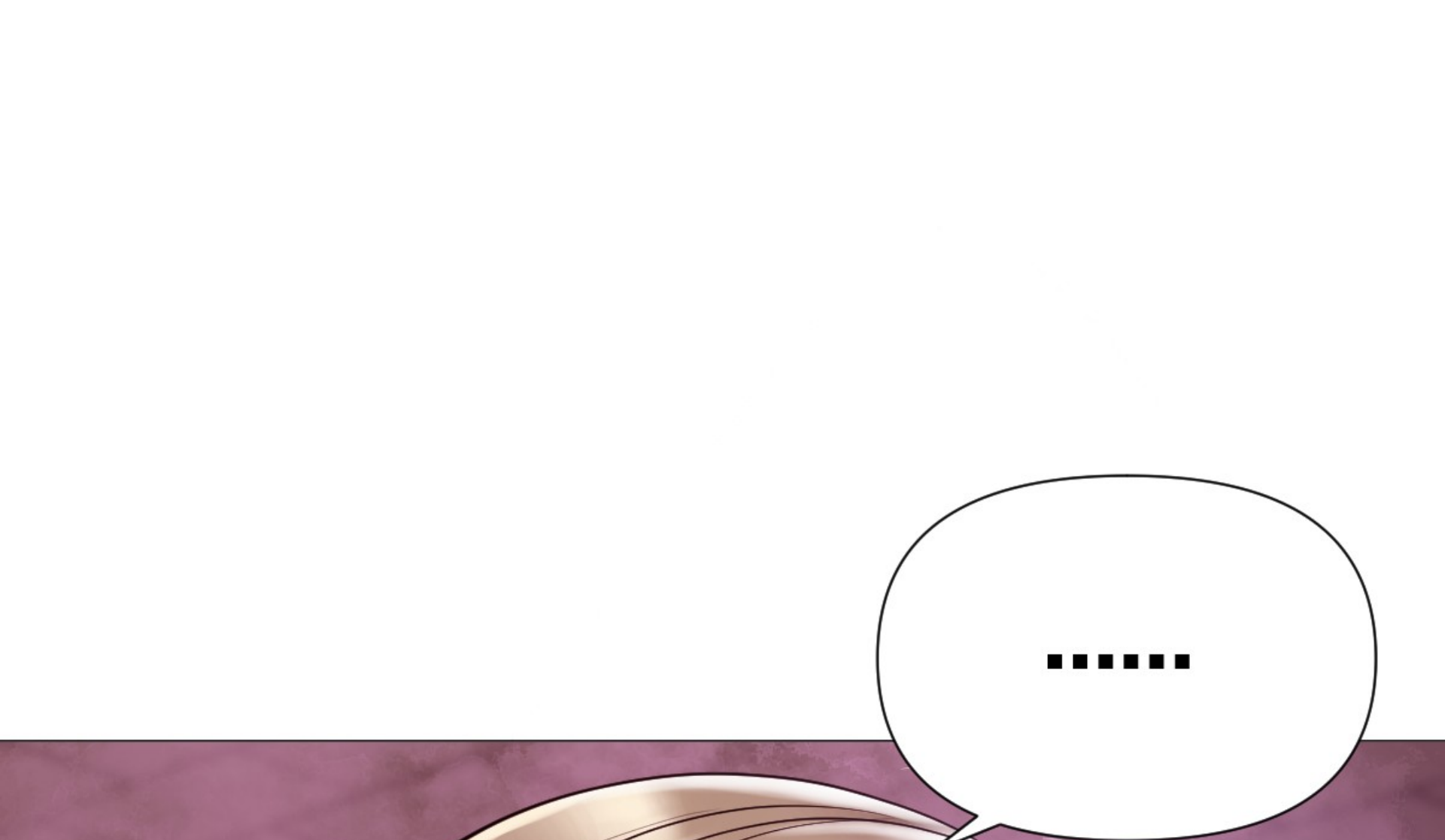
넌 네가 가진 능력과
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
살고 있으니까.



너처럼 완벽한 여자가
쓸모없는 윤리의식 때문에
그런 시덥잖은 놈을
품고 살다니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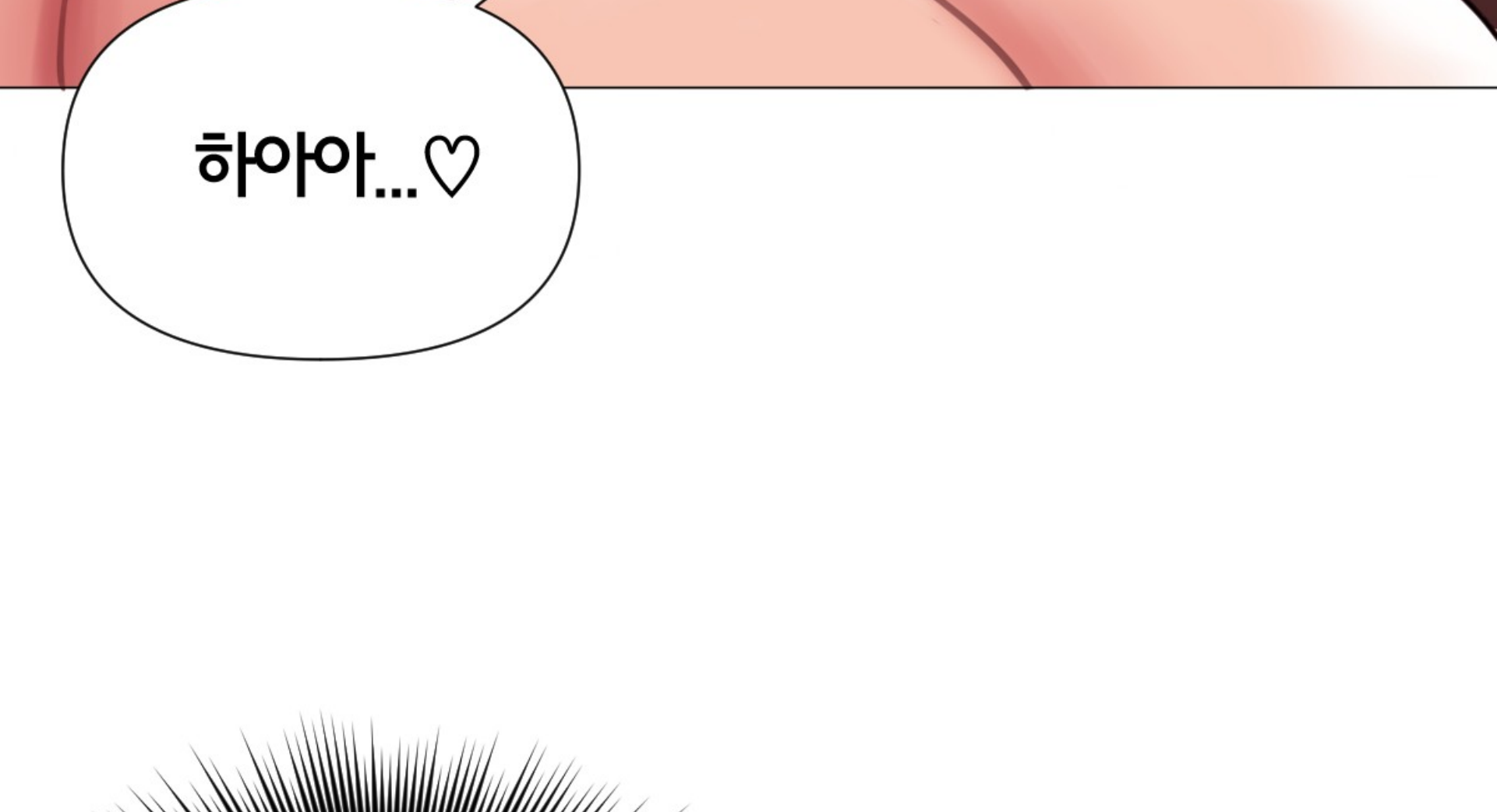
너무 아깝다고.



.....



하아아...♡



분명...
나를 현혹하기 위한
간교한 말인데...



왜지...



남편의
그 어떤 말보다...

몇 배는
황홀하게 들려....♡



크크!
리더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,
유약한 소녀만 남아있군.

어때?



하찮은
정의감 따위 버리고,
나와 손잡는 건.

뭐...?
그, 그게 무슨...



어차피 네 경찰서는
완전히 무너졌어.



네 명령에 복종할
부하 따위 남아 있지 않아.

이제 선택지는
두 가지 밖에 없다.

당장 이 모든 일을 상부에 보고하거나,



아니면 이 도시를 지배하는



카르텔의 2인자가 되거나.



모르겠어...

모든 게
혼란스러워...